

전남 서부권

완도 보길·노화도 최악 식수난

저수율 3% 상수원 바닥...열흘에 한 번 급수

완도 보길도와 노화도가 불가침으로 최악의 급수난을 겪고 있다. 10일에 한 번씩 물을 공급하는 제한급수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제 한 번만 더 공급하면 이마저도 바닥날 것으로 보여 섬주민의 식수난은 계속될 전망이다.



완도 보길도 상수원이 바닥을 드러내며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있다.

6일 보길·노화읍 주민들에 따르면 보길과 노화도 2200여 세대 주민에게 1일 1730t의 식수를 공급하는 보길상수원이 계속된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내면서 '10일 단수, 4일 급수'를 하고 있다. 상수원 최대 저수량 42만t 가운데 현재 3.7%인 1만577t의 물만 남았다. 주민 강석근(65·보길면)씨는 "날씨가 풀리면서 천혜의 절경과 역사 유적이 즐비한 보길도 관광객이 늘고 있지만, 급수난이 심각해 식당과 공중 화장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주민들도 빨래를 모아 10일에 한 번씩 하는 등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6일 보길·노화읍 주민들에 따르면 보길과 노화도 2200여 세대 주민에게 1일 1730t의 식수를 공급하는 보길상수원이 계속된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내면서 '10일 단수, 4일 급수'를 하고 있다.

상수원 최대 저수량 42만t 가운데 현재 3.7%인 1만577t의 물만 남았다. 주민 강석근(65·보길면)씨는 "날씨가 풀리면서 천혜의 절경과 역사 유적이 즐비한 보길도 관광객이 늘고 있지만, 급수난이 심각해 식당과 공중 화장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주민들도 빨래를 모아 10일에 한 번씩 하는 등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보길 상수원 관리원 이용씨는 "겨울에 이어 봄 가뭄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11월 54%인 저수율이 3%대로

하루 600t의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취수시설 설치와 함께 노후관로 교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지난 5일 보길도를 찾아 급수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과 대화를 가졌다.

김종식 군수는 "물부족으로 매년 어려움을 겪는 보길도 상수원 확장과 노후관로 교체, 집수정 개발 등 취수원 확보가 시급하다"며 관계 공무원들에게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함평 농공단지 석면지붕 해체 '날림'

형식적 비닐 보양작업에 주민 반발...단속 시급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철거시 관계당국의 철저한 지도와 단속이 절실하다. 6일 함평군 학교면 주민에 따르면 학교 농공단지내 A공장에서 슬레이트 지붕 등 철거작업이 한창이다. 하지만 업체는 석면 슬레이트지붕 해체 작업장 바닥과 벽면 측면에 설치해야 할 비닐 보양작업을 형식적으로 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장 관계자는 "바닥에 비닐 보양작업을 했는데 바람이 불고 차량이 들어 다니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며 "일정을 맞추다 보니 서둘러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더욱이 석면해체의 지도·단속은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해 노동청 관할이고, 폐기를 처리하는 일선 지자체에서 이뤄지고 있어 제도적인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석면해체 업체들의 자가 검역 역시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함평군 관계자는 "석면 철거 지도·단속권한이 노동청이라 권한이 없다"고 답변했으며, 노동청 관계자는 "관할구역이 많아 먼저 접수된 현장부터 돌아봐야 해 현실적인 석면해체 지도·단속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새터민과 제주 2박3일"

민주평통자문 목포시협

이처럼 대다수 1급 발암물질인 석면해체 작업장들이 관련법 규정을 위반하며 공사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도·관리감독권을 가진 노동청은 많은 업무와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 현장을 돌며 점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군에서 발급하는 지정폐기물(석면) 처리와 연관해 석면해체 공사의 지도·단속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할 수 있는 석면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주민 박모(56·학교면)씨는 "독성 물질인 석면 피해예방을 위해서 감독기관의 체계적인 지도단속이 절실합니다"고 주장했다.

/서부취재본부=황은희기자 hwang@

민주평통통일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회장 이상현)는 최근 2박3일 동안 북한이탈주민 가족과 함께 제주도 문화탐방을 실시했다.

이번 문화탐방은 사회적 환경이나 경제적 이유로 나들이가 힘든 새터민들에게 국가의 소중함을 느껴 지역사회 내에서 같은 민족으로서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현 회장은 "지역내 새터민들이 정착과 적응의 어려움 때문에 주민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며 "민주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시민의 삶을 배우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황실이 어선 농어떼 만나 '황제'

4000상자 2억원 어치 잡아

4월 들어 바다수온이 상승하면서 서해안 어항이 호전되고 있다. 안강항 77명성호(선주 정복영·69)는 지난 5일 5항차 황강달이(일명 황실이) 조업을 나갔다가 대흑산도 서북방 15마일 해상에서 농어떼를 발견, 4000여 상자의 어획고를 올렸다. 5일 현재 판매가로 2억원에 육박하는 대박이 터진 것.



<농어>

지난달 15일 남해호가 농어를 만선해 1억2000여 만원의 어획고를 기록한 데 이어 명성호가 조업 사상 최고의 기록을 세웠다. 명성호는 그동안 4차례나 출어했

지만 출어적기에 기상여건이 나쁘다다 툭 떨어진 바다수온 등으로 인해 부진한 어획을 면치 못했다. 선주 정복영 씨는 "바다수온이 상승하면서 본격 출어에 나섰다가 2~6kg 농어를 선창에 가득 채웠다"며 밝은 표정을 지었다. 한편 농어는 조류가 빠른 해안 수면위에서 새우와 멸치 등의 먹이로 회유하고 있는 어종이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목포사랑 평화활동부터...

목포시의 목포경찰서, 목포해경은 지난 5일 평화광장 일원에서 2011년 친절·질서·청결 목포사랑 시민운동 적극 실천을 위한 시민결의대회 및 봄맞이 청결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하당 공한지에 불꽃 6000주를 심었다.

목포시의 목포경찰서, 목포해경은 지난 5일 평화광장 일원에서 2011년 친절·질서·청결 목포사랑 시민운동 적극 실천을 위한 시민결의대회 및 봄맞이 청결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하당 공한지에 불꽃 6000주를 심었다.

<목포시 제공>

"해수욕장, 해변이라 불려주세요"

다도해해상국립공원내 15개소 명칭변경

다도해 해상국립공원내에 속해 있는 15개 해수욕장의 명칭이 '해변'으로 변경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소장 황정걸)는

"해변을 해상 국립공원의 주요 자원으로서 삼고 여름 한철이 아닌 사계절 이용으로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해변'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해수욕장은 바닷물목욕하는 장소라는 느낌과 여름철에 집중되는 탐방으로 국립공원의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비급면 하늬늪 해수욕장이 하늬늪 해변(일명 하트 해변)으로 변경되고 시목해수욕장→시목해변, 둔독 해수욕장→둔독해변, 배낭기미 해수욕장→배낭기미 해변 등으로 바뀐다.

/서부취재본부=조원남기자 wncho@

전북

군산 금강호 철새도래지 국제 인증

EAAFP 100번째 사이트 등재

군산 금강호 지역이 세계적 철새 보호지구인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의 100번째 네트워크 서식지로 등재된다. 군산시 철새조망대는 7일 시청에서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전국의 습지관리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EAAFP 파트너십 인증서 수여식을 갖는다. 이날 군산시는 EAAFP 사무국과 함께 '2011년도 EAAFP 파트너십 국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서식지 관리 담당자 워크숍'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네트워크 사이트 지정은 위해시는 지난해 10월 네트워크 사이트 지정을 신청, 국내외 전문가의 검토 결과 금강호 지역이 네트워크 사이트

지정 기준을 충분히 상회해 검토자 전원일치로 지난해 11월 29일 네트워크 사이트의 100번째 사이트로 등재가 확정됐다. 하지만 군산시는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의 확산으로 인해 사이트 인증서 수여를 연기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금강호에 도래하는 철새의 보호를 위해 지난해부터 EAAFP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이라며 "금강호가 이번에 네트워크사이트 인증을 받아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은 한반도를 통과하는 철새들의 주요 이동경로(동아시아-대양주)를 오가는 철새 보호를 위해 10여 개국이 참여한 국제기구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내 유치 물러설 곳 없다"

김완주 지사 비상시국 선포 삭발 결행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이전 문제가 전북지역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으로 주공과 토공이 LH로 통합되는 바람에 경남은 '일괄이전'을, 전북은 '분산 배치'를 주장하며 2년째 갈등을 빚어 왔다. 하지만 도내에서는 최근 신공항 건설 백지화에 따른 보상으로 LH가 경남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과 의지를 담아 삭발을 결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최근 경남권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LH본사가 정치 논리에 의해 경남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의 원칙을 따르지 않은 쪽은 경남인데도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부당하다"고 LH본사 분산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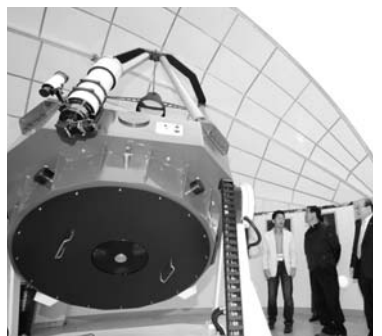
또 김 지사는 "분산 배치를 내리겠다던 국토해양부는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정부여당은 우리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귀마저 막 아버렸다"며 "정부가 안을 만들고 있는 시점에 정부를 향해 우리의 단호한 행동과 결의가 필요할 때이다"고 전 도민의 응징력을 부탁했다.

김 지사는 삭발식과 호소문을 발표한 뒤 전주시 덕진구 장동 혁신도시 건설부지에서 진행된 'LH본사 분산 배치 터울행 행사'에 참석, LH본사 분산배치 구호문을 제창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분사 분산배치의 열원을 담은 풍선을 날렸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김용철기자 knews@

우주 체험하며 심신단련

부안군, 폐교부지에 청소년수련원 개관



부안군 상서면 폐교부지에 전문시설을 갖춘 청소년수련원이 문을 열었다. 부안군은 5일 상서면 옛 청림초등학교에서 '정립 청소년수련시설' 개관식을 가졌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부지 8000㎡에

숙박시설, 운동시설뿐 아니라 최신 전문관측 시설을 갖췄다. 특히 천문과학시설로 국내 최대 규모의 1000mm 반사망원경, 8m 완전 개방형 돔, 최고의 투과율과 밝은 별을 관측할 수 있는 150mm 최고급 쌍안경, 보조 망원경 9종과 함께 3차원(3D) 영상으로 전문현상 및 우주여행을 체험하는 시스템 등도 구비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수련시설이 청소년 심신단련과 정신수양뿐 아니라 우주의 신비로움을 체험하는 시설공간으로서 천문과학 지식의 향상과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도민 열원 모아모아...

김완주 전북지사와 도청 관계자들이 6일 LH 입주 예정지인 전주·완주혁신도시를 찾아 터 율기 행사에 참석해 LH 본사유치를 열원하는 풍선을 날려 보내며 의지를 다졌다.

김완주 전북지사와 도청 관계자들이 6일 LH 입주 예정지인 전주·완주혁신도시를 찾아 터 율기 행사에 참석해 LH 본사유치를 열원하는 풍선을 날려 보내며 의지를 다졌다.

남원 지리산 둘레길 2.2km 뱃꽃 터널 조성

서부지방산림청은 남원시 '지리산 둘레길' 2.2km 구간에 왕벚나무 600여 그루를 심어 뱃꽃 터널을 조성키로 했다.

'지리산 둘레길' 2구간인 운봉읍~인월면 구간은 주변에 나무가 없어 걷기도 지루할 뿐 아니라 여름철에 가로수 그늘이 없어 탐방객들이 이용을 꺼리는 지역이어서 왕벚꽃 터널 조성에 나섰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나무가 없는 지리산 둘레길에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심어져 푸른 둘레길이 조성돼 많은 탐방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변산국립공원사무소 특산품 홍보 캠페인

변산반도 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용규)는 지난 5일 변산반도 일원에서 유관기관, 지역주민 및 자원봉사자 학생들과 함께 국립공원내 금지행위 예방 및 지역특산품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탐방객 집중지

역인 내빈산 탐방지원센터에서 흡연 및 셋길 출입금지 등 공원내 각종 금지행위 예방과 지역특산품인 표고버섯, 돼지 감자차를 중점 홍보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